

일장기말소사건의 역사적 의미

A Study 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Erasure of the Japanese National Flag

하정희 · 손환* 중앙대학교

Ha, Jung-Hee · Son, Hwan *Chung-Ang Univ.*

요약

본 연구는 일장기말소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검토한 것이다. 조선중앙일보의 일장기말소사건은 여운형이 민족의식을 주입하라고 격려해 유해봉이 손기정의 민족적인 승리를 통해 전 국민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일어난 것과는 달리 동아일보는 회사의 전통과 방침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김성수와 송진우가 일장기말소사건에 대해 매우 노여워했다는 사실에서 기자와 편집자들에 의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김성수는 일장기말소사건이 당시 시대적으로 조선총독부의 문화통치정책으로 인해 민족지도자와 사회저명인사들이 친일파로 변질되어가는 상황에서 민족의식을 일깨워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생각하며 동아일보가 민족지로서 짊어지고 가야할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일장기말소사건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하 실의에 빠져있던 우리국민들에게 손기정을 통한 대리만족으로 용기와 희망, 그리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며 당시 조선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 역할을 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Erasure of the Japanese National Flag. The erasure of the national flag of Japan caused by Choseonjoongangilbo was occurred by Hae Bung Yu, who had been encouraged by Yu, who had been encouraged by Wun-Hyung Yeo, for the purpose of arousing a sense of national identity for Korean people through the national victory of Kee-Chung Son. That incident by the Dong-A Daily News, however, is believed to have been caused by reporters and editors, despite the assertion that it was derived from tradition and policy of the company, in that Sung-Su Kim and Jin-Wu Song were offended by the incident. However, Sung-Su Kim demonstrated that the incident was a sort of warning message to enlighten the national consciousness at that time when Nationalist leaders and prominent figures had become pro-Japanese by Japanese forcing their culture on Koreans. In addition, he insisted that Dong-A Ilbo should move forward as the national newspaper. To conclude, the incident of the erasure of the Japanese national flag has great historical significance. That is, it eventually offered an opportunity to instill encouragement, hope and confidence into Koreans who had been in despair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s vicarious satisfaction through the victory of Kee-Chung Son. Besides, the incident had served as a warning to the leaders at that time.

Key words: japanese national flag, erasure of japanese national flag, historical significance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1-413-017).

* sshwan@cau.ac.kr

서론

1936년 8월 9일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은 올림픽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손기정의 우승이 국내에 전해지자 조선의 전 국민은 감격에 겨워 열광하고 각 신문들은 호위를 발행하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보름 후인 8월 25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손기정 가슴의 일장기가 지워진 채 지면에 실렸다. 이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일장기말소 사건이다.

일장기말소사건은 일제강점기 국가가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일본대표로 출전한 손기정이 우승하자 일본에 대한 분노감의 표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손기정의 우승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국민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워주고 한민족의 우수성과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와 같이 일장기말소사건은 한국근대스포츠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장기말소사건에 대한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손기정의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후 일어난 일장기말소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일장기말소사건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국민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주었으며 또한 손기정의 선수생활을 그만 두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와 관련해 종래의 선행연구를 보면 이길용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일장기말소사건은 스포츠와 언론이 이루어낸 민족적 항쟁으로서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단결심을 고취시켰으며(이인숙, 1996), 또한 이길용의 회고록을 통해 일장기말소사건을 일으킨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손환, 2006). 그러나 일장기말소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손기정과 동아일보사의 반응은 어떠한지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손기정, 이길용, 이상범의 회고록, 김성수의 자서전, 유족과의 면담, 당시 발행된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 삼천리 잡지 등을 주된 자료로

사용해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일장기말소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일장기말소사건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재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선중앙일보의 일장기말소사건

조선중앙일보는 1936년 8월 13일자에 손기정 가슴의 일장기를 지운 채 실었는데 이것이 일장기말소사건의 최초 보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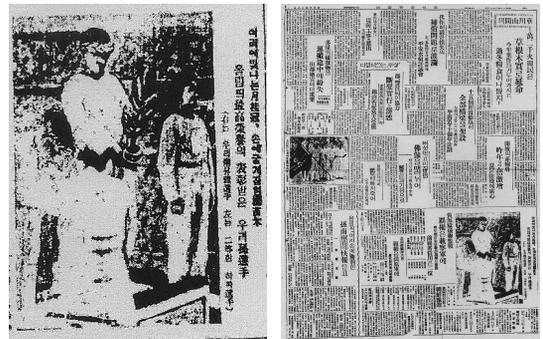


그림 1. 조선중앙일보 손기정의 일장기말소
출처: 조선중앙일보 1936년 8월 13일

당시의 사진은 <그림 1>과 같은데 오른쪽은 신문의 전체기사이고 왼쪽은 오른쪽의 우측 하단의 사진을 확대한 것으로서 거기에 “머리에 빛나는 月桂冠, 손에 굳게잡힌 檉苗木 올림픽 最高榮譽의 表彰 받은 孫選手”라고 되어 있다. 사진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왼쪽의 확대한 사진을 보더라도 일장기가 지워져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인데 그래서 총독부 당국의 검열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 그냥 넘어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경기도 경찰부가 8월 25일 동아일보 일장기말소사건의 수사에 착수하면서 조선중앙일보의 일장기말소사건도 함께 수사하게 되었다.

당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선중앙일보의 기자인 유해봉이 사진부원과 협의해 일장기 마크를 삭제한 것이라 발표했다(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37, 채백, 2008: 103 재인용). 이에 대해 당사자인 유해봉은 일장기말소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1936년 8월10일 상오1시31분(독일시간 8월9일 하오5시31분)이라는 시간은 손기정 선수가 백림올림픽 마라손 경기에서 전 세계 각국의 청년(50선수)을 물리치고 최후의 텃을 끈 때이었다. 아니 우리 조선유사이래 처음으로 세계를 제패한 역사적 시간인 것입니다. …중략… 「조선중앙일보」는 이 역사적 민족의 승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려고 ‘조선청년이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여지없이 발휘하였다’는 등 기사는 매일같이 민족의식을 북돋는데 노력하였으며 이에 정비례하여 왜적의 눈초리는 날로 뿔뿔하여지고 말았다. 수차 기사가 너무 불온하다는 주의를 받았으나 당시 사장이든 몽양 여운형 선생은 필자보고 “붓대가 꺾어질 때까지 마음껏 민족의식을 주입할것이며 그놈들의 주의를 들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였다. 8월14일 오후에 손군이 승리한 문제의 사진이 백림에서 일본 동경으로 전송되어 「대판조일(大板朝日)신문」이 게재한 것을 일장 마-크만을 말소하고 전사(傳寫)발행하였으나 그후 수일을 경과하도록 무사하였다. 약 일주일 후 정식 사진이 「동맹통신」을 통하여 온 것을 동업 「동아일보」는 역(亦) 우리와 같이 일장 마-크를 말소하고 게재한 것을 발견 당하여 이길용씨의 6,7명의 「동아일보」기자 제씨가 경기도 경찰부에 피검되자 당시 「조선중앙일보」체육부 기자로 있던 필자도 1주일 전에 이미 좀 명백치 못한 전송사진을 이용하였으나 일장 마-크만은 말소하였으니 발견만 당하면 기필코 피검될 것을 각오하였다. …중략… 그대 일장 마-크를 말소하였다고 우월감을 가진 일은 한 번도 없다. 그 이유는 「조선중앙일보」사내의 사상의 조류는 당시 으레 어떠한 때든지 일장기 같은 것은 일차도 게재한 경험이 없다. 그럼으로 누구든지 필자의 자리에 있으면 역(亦) 왜적의 기를 말소하였을 것이다(조선중앙일보. 1947. 7. 1).

이와 같이 유해봉은 조선의 유사 이래 처음으로 세계를 제패한 손기정의 우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당시 여운형도 마음껏 민족의식을 주입하라고 격려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유해봉은 조선중앙일보가 일장기를 게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장기말소에 대해 우월감을 가진 일은 없으며 조선인이라면 누구든지 일장기를 말소했을 것이라고 했다. 유해봉은 손기정의 역사적인 민족적 승리를 통해 전 국민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장기를 말소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경찰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속에서 조선

중앙일보는 1936년 9월 4일 자진휴간을 알리는 사고(社告)를 게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근고(謹告) 금회(今回) 동업(同業) 「동아일보」는 손(孫) 올림픽 우승한 사진을 동지상(同紙上)에 게재함에 당(當)하여 일장기 마크를 기술(技術)로써 말소하여 게재한 일이 관망되었기 때문에 발행정치처분의 제재를 받음에 이르렀으나 여사(如期)한 일은 실로 유감천만사로 생각한다. 본사(本社)에서도 이러한 일은 전연 없으리라고 믿었으나 「동아일보」동양(同樣) 우(右) 손 선수의 일장기 마크를 말소하여 게재한 혐의가 농후하게 되어 드디어 관권이 발동되고 목하(目下) 사원(社員) 수명은 당국의 어중한 취조를 받음에 이르렀음은 이는 실로 공구불감(恐懼不堪)의 소이(所以)이다. 이에 본사는 취조결과와 판명을 기다려 기(其) 책임 소재를 규명함은 물론이요 당국의 처분이 내릴 때까지 근신하고자 금요일(今五日)자 조건부터 당분간 휴간한다. 다시 속간(續刊)되는 날에는 배구(倍舊)의 애독(愛讀)이 있으시기를 바랍. 쇼와(昭和) 11년9월4일, 조선중앙일보사.(조선중앙일보. 1936. 9. 4).

그리고 조선중앙일보가 자진휴간을 하게 된 내막에 대해 당시 삼천리 잡지를 보면,

「조선중앙일보」는 「동아일보」에 뒤지기 약 일주일 후인 구월사일에 태연히 일편(一片)의 사고(社告)를 지상(紙上)에 게재하고 그날로부터 휴간하여 버렸다. 그 진상은 이러하다. 「동아일보」 사건을 취조하다보니 「중앙일보」에 선(先)하기 약 십여 일인 팔월 십오일 지면에 역시 손 선수 흉간(胸間) 일장기를 약간 말소하여 지상에 내었다. 궤(軌)를 일허한다면 이대로 가다가는 당연히 「동아일보」 모양으로 정간처분을 당하게 된 동사(同社)에서는 최후로 구월 사일 경무 당국의 맥을 살펴보아도 여망(餘望)이 없음으로 이에 결심하고 동야(同夜) 여(呂)사장, 함 상무, 윤 편집국장, 영업국장 등 최고간부 회의를 열고 자진 휴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름은 이와 같이 자진 휴간이나 경무 당국의 양해가 없이는 발간치 못할 것이므로 사실상 정간에 불외(不外)한데 다만 정도(程度)가 경미하다 할 것이다. 동사(同社) 역(亦) 가령 1개월 이내의 휴간이라 할지라도 손해는 고원(高圓)을 불하(不下)할 것이다. 지금 사원(社員)은 전부 출사(出社)하여 역(亦) 근신의 뜻을 표하고 있는데 이제 아직도 경기도 경찰부에 구금되어 있는 사원은 사(四) 씨(氏)라 한다. 체육부원 유해봉, 사진부원 삼명(編輯部, 1936: 32).

라고 되어있다. 이처럼 조선중앙일보는 입장기말소사건으로 동아일보가 1936년 8월 27일부터 무기정간에 들어가자 동아일보와 같은 행정처분을 당할 것을 우려해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간부회의를 통해 스스로 근신하는 차원에서 휴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중앙일보는 그 후 속간되지 못하고 결국 폐간되고 말았다.

동아일보의 입장기말소사건

주지의 사실과 같이 손기정은 1936년 8월 9일 제11회 베를린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그의 우승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의 전 국민은 감격에 겨워 환호하며 각 신문사들도 호외를 발행하는 등 매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림 2. 동아일보 1936년 8월 13일자 손기정의 입장기말소 출처: 동아일보. 1936. 8. 13

그러나 동아일보는 손기정 우승 후 4일 뒤인 8월 13일에 손기정 가슴의 입장기를 지운 채 신문지면에 실었는데(동아일보. 1936. 8. 13), 이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를 보면 왼쪽이 신문의 전체기사이고 오른쪽은 왼쪽 우측 상단의 사진을 확대한 것으로서 거기에 “月桂冠孫基禎”이라고 되어 있다. 사진의 상태가 좋지 않지만 손기정 가슴의 입장기가 지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에 조선중앙일보가 1936년 8월 13일에 처음으로 손기정 가슴의 입장기를 지웠다는 것

과는 달리 확인인에 의해 최초로 밝혀졌다(채백, 2008: 104). 또한 채백은 이 두 신문사 중 어느 쪽이 먼저 손기정의 입장기말소를 보도했는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조선중앙일보 1936년 8월 13일자 석간에는 이 사진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기정선수 사진의 입장기를 흐리게 한 것은 8월 12일 밤에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 동아일보(지방판)가 먼저였다고 할 수 있겠다고 했다(채백, 2008: 112).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진상파악을 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약 2주 후인 8월 25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손기정 가슴의 입장기가 지워진 채 재차 지면에 실렸다. 이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입장기말소사건인데 이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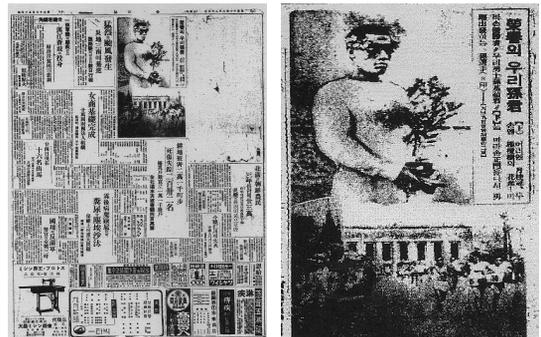


그림 3. 동아일보 1936년 8월 25일자 손기정의 입장기말소 출처: 동아일보. 1936. 8. 25

<그림 3>을 보면 왼쪽이 신문의 전체기사이고 오른쪽은 왼쪽 중간의 사진을 확대한 것으로서 거기에 “영예의 우리孫君 머리엔 月桂樹, 두손엔 橄欖樹의 花盆! 마라손優勝者 우리 勇士孫基禎君”이라고 되어 있으며 손기정 가슴의 입장기가 지워져 있으나 교묘하게 월계수 화분에 가려져 있다.

입장기말소사건의 발단은 8월 25일자 동아일보 석간 2면에 월계관을 쓰고 수상대에 오른 손기정선수의 감격적인 사진이 실린 것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주간지 ‘아사히스포츠(朝日スポーツ)’를 뒤늦게 입수해 거기에 실린 사진을 복사하여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초판 때는 입장기가 선명하게 보였으나 재판에서는 원본과 달리 유니폼 가슴부위의 입장기가 교묘히 삭제되어 있었

다. 체육부 기자 이길용이 전속화가 이상범에게 사진 속의 일장기처리를 상의했고 두 사람은 이심전심 별다른 말없이 의견일치를 보았다(동아일보80년사 편찬위원회, 2000: 258). 이에 대해 이상범은 당시의 사건전말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는데,

그때 나는 本社調査部에서 美術部門의責任을가지고 있었는데 八月二十四日上午十一時頃에 運動記者 李吉用氏가孫選手の 寫眞幅을 보내면서 編輯局女使童에게 「孫選手胸部에있는 日章旗 「마-크」를 지워달라」는 付託의말을傳하여주었다. 그런데 그傳言이分明치못하여 나는 李吉用氏에게構内電話를걸어이에對한具體的인애기를듣고 그의뜻을알았다. 勿論 이런일이 혹시나 무슨問題나되지않을까하는 걱정도없지는않았으나 古語에 「時人意思同」이란말과 같이 나亦是그것이 풀보기싫던판이라 다시더考慮할나위도없이 그의말대로豪氣있게 精誠拭抹消해가지고 寫眞課製版室로돌렸다. 그後에 알고 보니 李吉用氏가 이寫眞에있는 日章旗「마-크」를 塗粉抹消할터이니 明日夕刊二面으로 掲載하여달라고 當時編輯者인 張龍瑞氏에게 同意를 얻었다고한다. 문제의 이寫眞은當時日本大阪朝日新聞社에서發刊한 「週刊朝日스포츠」에 掲載된것으로서 孫選手가 머리에 月桂冠을쓰고 두손으로 極腕樹盆을 들고 受賞臺우에 올라선것인데 그 凜凜한體軀에 遺憾스럽게도 그 胸部에 日章旗 「마-크」가 너무도 뚜렷하게 나타났던것이다. 그런데 이塗粉抹消한 寫眞은 銅版이되어本報當日夕刊(第五,六五七號)에 실려서 數 많은讀者의손으로 大部分넘어갔다(동아일보. 1956. 8. 17).

고 했다. 이처럼 이상범은 이길용의 얘기를 듣고 내심 고민하면서 자신도 손기정 가슴의 일장기모습이 보기 싫어 삭제하게 되었는데 다음의 내용을 통해 동아일보의 편집자들도 여기에 다수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編輯者인 張龍瑞氏는 그날내가 그 寫眞原本을 製版室로 넘긴뒤에 製版室(三層)에가서 寫眞課員 徐永浩氏에게 「藥을 충분히 쳐서 깨끗하게 잘抹消하라」고 付託하였다 고 한다(동아일보. 1956. 8. 18).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이길용의 자술 회고록을 통해 일장기말소사건의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東亞紙가 太極旗를 짓기는 한번이지만 日章旗抹殺이란 恒茶飯으로 不知其數다. 世上이알기는伯林올림픽마라손의 日章旗抹殺事件이李吉用的 짓으로 꿈이어진것만알고있다. 無理도아니다. 社内の社是라고 할가 傳統이라고할가 方針이 日章旗를 되도록은 아니실었다. 우리는 도모지 실지않을속심이었던 것이다. 內地라는글을쓰지 않은것과 마찬가지로이다. 地方이건 서울이건 京鄕間에新聞紙에 掲載해야할무슨建物の落成式이니 무슨工事の竣工式이니 얼른 말하자면 地方方面으로는 面所나郡廳이니 또는駐在所나 等々の 寫眞에는 반드시 日章旗를正面에 交叉해다는데 이것을짓고 실리기는 不知其數다. 이러한 우리로서 어찌 孫基祿選手 유니폼에 일부러겨려너은 듯한(電送寫眞으로는 너무 日章마크가 鮮明하였다) 日章마크를그대로실을수있을 것인가 이것이 月桂樹花盆을 들고攝影한 孫選手人物로는 처음인지라 너코싶은慾心에 그것을오려서 畫伯李象範氏(當時東亞社勤務)에게 좀더 修正을하되 日章마크를 아니보이도록 附近을흐려버리라고 筆者가 부탁을 하였다(李吉用, 1948: 梅7-8).

라고 해 일장기말소사건은 이길용의 주도로 일어났으나 실제로는 동아일보사의 전통과 방침에 따라 처음부터 작정하고 일어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지방이나 서울의 행사 때나 관공서에 게양되어 있는 일장기를 신문지상에 게재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손기정 가슴의 너무나 선명한 일장기를 지워버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길용은 손기정의 우승으로 그 감격과 환희가 조선민족의 혼을 되살렸고, 특히 조선의 청년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고 하면서 일장기말소사건의 직접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運動記者生活十六年! 이처럼興奮되고 기꺼운때가 또 언제 있었으랴. 이러든나는 이나라의아들인孫選手를 倭놈에게 빼앗기는것같은느낌이 그 「유니폼」 日章마크에서 嚴肅하게도 衝擊을 받았다. 그러케 팔세를하고「요보시오가나이」라든자들이 저의가世界올림픽에 처음으로 進出하는 二十四年前마라손으로부터 내리 마라손에는 淸勝利한다고 버티고덤비다가 達치못한후 宿望을우리 孫選手가 優勝을하고나니 그제부터는 그다지도 낮간즈럽게 「二十餘年の 宿望達成!我等의孫選手堂堂優勝!」이러한題目이日文各紙에 大書特筆하는꼴을볼때 어찌 民

族的衝擊과義憤이 없겠는가. 가진差別과 온갖賤待를 알
 뜰이다하고나서 優勝하고나니 덤비는모양은 民族的義
 憤은그만두고라도 人類의良心으로서 可憎키작이없었다.
 이러한環境과霧圍氣속에서 비저진 日章旗抹殺事件이란
 怒濤를막을者-없음과같다고할가(李吉用, 1948: 梅8).



그림 4. 이길용의 일장기말소사건 자술 회고록
 출처: 이길용(1948). 所謂『日章旗抹殺事件』.
 新聞記者手帖. 모던出版社. 梅3.

또한 광복 이후 이길용은 일장기말소사건에 대해 두
 고두고 또 죽어도 잊지 못할 중대사였고 사건이라기보
 다는 어마어마한 일대 사변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하면
 서 이로 인해 동아일보라는 큰 기관의 문이 닫히고 날
 마다 중압 속에서 일제의 눈초리를 받아가면서도 조석
 으로 우렁차게 활기 있게 굴든 운전기가 멈춘 것에 대
 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李吉用, 1948: 梅4). 이처럼 일
 장기말소사건이란 흥분과 민족적 감격에서 빚어진 것
 이고 누구하나의 기술의 과오도 아니요 또 착오도 아니
 고 짐짓 일을 집어 물의를 자아내려는 기도도 아니고
 심산도 아니었다고 했다(李吉用, 1948: 梅6).

<그림 4>는 일장기말소사건에 대해 이길용이 처음
 으로 직접 자술한 회고록인데 이것이 송두리째 숨어있
 기를 10년, 해방되어 영문으로 미주둔군 보도진을 통해
 서 쓰여졌지만 이처럼 자세히 쓰이기는 자기 자신이 관
 여한 일이라 처음 되는 자술이라고 하면서 머리가 지긋
 지긋한 당시의 묵은 기억을 일깨우니 감개무량하다고
 했다(李吉用, 1948: 梅6).

이와 같이 이길용은 일장기말소사건은 민족적 감격
 에서 일어났으며 평생 잊지 못할 중대한 사건이었고 동

아일보사에 폐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
 각하고 있었다.

한편 이길용은 광복 이후 동아일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1950년 4월 1일자에도 ‘일장기말살 정신 동아일
 보의 빛나는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회고담을 언급했는
 데,

전략… 몸소당한 가장큰감격의 이른바 일장기말살
 (日章旗抹殺)사건의 전후를 회고하기로하자. …전략…
 동아지면에일본기달린사건을 실린일없는 말하자면 일
 본색을지상에서 근본부터말살하려고한것이 누가시키지
 않는 저절로의 동아동지들의 전통이랄가 사시(社是)처럼
 되었다. 기억도새로운 一九三六년八月九일!독일백림(伯
 林)에서열린 제十一회올림픽대회의 마라손날이다. …중
 략… 첫째 첫째 손기정선수가첫째 첫째의시간은 두시간
 二十九分十九초二 이것은 게다가 세계신기록! 호외(號
 外)로 붓을달리자니 손이떨리고 그저 멍하니 꿈인듯 이
 순간에 감격과흥분은 그저자신뿐아니라 모르면모르되
 이전과□□은동포는한결같았을 것이다. 전파한소리에
 환희一색이요 만세의고함성은 三천리를뒤흔드는듯 기
 미년독립만세때를 연상케하였다. …전략… 손기정선수
 가 우승을하고나니 저이들이잘먹이어 우승한것처럼 서
 드는그꼴이란 관심을가진 필자자신으로서는더욱민족적
 격분이용솟음침을막을길이없었다. …전략… 이것은 누
 가시키지도않은거시오 과실도아니며 오직민족적 충격
 에서 자신도모르는 감격과일본에대한분노감이 서로 어
 리어벌어진사건인것이다(동아일보. 1950. 4. 1).

라고 하며 일장기말소사건은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동아일보의 전통과 회
 사의 방침에서 비롯되었는데, 특히 손기정의 우승을 일
 본인들이 자기들의 공으로 하는 것에 분개한 나머지 일
 본에 대한 분노감으로 민족적 감정의 발로에서 일어났
 다고 했다.

이처럼 지금까지 일장기말소사건에 대해 이길용은
 동아일보의 전통과 방침에서 일어났다고 역설했는데
 다음의 동아일보 경영자 입장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장기말소사건에 대한 연락을 받은 김성수(동아일
 보 사주)와 송진우(동아일보 사장)의 반응은 다음의 「仁
 村 金性洙傳」을 통해 엿볼 수 있다.

普專 理事室에서 이 사실을 電話로 연락 받은 仁村은 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점점 험악해져 가는 時局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 해도 無期停刊이 내릴 것은 틀림 없었다. …중략… 급히 東亞日報社로 오는 自動車 속에서 仁村은 히노마루抹消는 沒知覺한 소행이라고 노여움과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 寫眞에서 日章旗를 지워버리는 데서 오는 瞬間의 快와 東亞日報가 停刊되거나 영영 문을 닫게 되는 데서 失을 생각하여 그 答은 분명했다. 산란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던 仁村은 途中에 問題의 新聞을 구해서 그 寫眞을 보고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民族의 正氣가 萎縮되어만 가고 變節하는 有名無名의 群像이 늘어가는 世態로 볼 때 히노마루의 抹消는 잠자려는 民族意識을 흔들어 놓은 警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다소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에 대한 評議는 民族 代表紙로서 快히 읽어져야 할 十字架라고 생각되기도 하였다. 社長室에 들어선 仁村은 눈을 감고 沈痛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古下에게 한마디 없을 수 없었다. 자네 거기서 뭘하고 앉아있나? 그도 조금전까지만해도 「성냥개비로 高樓巨閣을 태워버렸다」고 李吉用기자를 크게 꾸짖으면서 흥분을 가누지 못했던 것이다. 인촌은 더 말이 없었다(仁村紀念會, 1976: 388-389).

이와 같이 송진우는 일장기말소사건을 일으킨 이길용을 꾸짖었으며 김성수는 물지각한 소행이라며 노여워했다는 사실에서 일장기말소사건은 동아일보의 경영진과는 달리 직원들에 의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성수는 일장기말소사건이 1919년 3·1 독립운동 이후 조선총독부의 문화통치정책으로 인해 민족지도자를 비롯해 사회저명인사들이 친일파로 변질되어가는 상황에서 민족의식을 일깨워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여기며 이는 동아일보가 민족지로서 짊어지고 가야할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일장기말소가 인쇄된 8월 25일자 석간이 발행되자 경기도 경찰부는 검거를 시작했다. 일장기말소와 관련해 경기도 경찰부에 동아일보 관계자가 연행된 것은 8월 24일 밤 임병철과 백운선을 시작으로 8월 25일에는 이상범, 장용서, 서영호, 8월 26일에는 현진건(사회부장), 신낙균(사진과장), 최승만(잡지부장), 송덕수(사진부), 변영로(신가정 편집자), 8월 27일에는 이길용이었다(동아일보. 1956. 8. 18, 8. 19).

이들은 연행된 후 취조를 받으며 온갖 모진고문을 당했는데 이에 대해 이상범과 백운선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나는 원체 體弱해보인까닭인지 그놈들에게 두번 몹시 惡刑을 당한뒤로는 큰惡刑은 아니받았으나 張龍瑞, 李吉用, 徐永浩씨들은 罰水(冷水를 네다섯 「빠چه쓰」를 먹었다는것)도켜고 擊劍대로 맞기도하고 그놈들이 타고올라 앉아서 짓누르는것도 당하고 이놈저놈의 발길에 죽게채 이기도하고 따귀맞기, 귀불잡고 매미돌리기등 갖은惡刑을 당하였다(동아일보. 1956. 8. 19).

四肢가멸정한 나의몸에쇠(鐵)사슬이 칭칭얼기어 殘忍한拷問의 地獄生活에 발버둥치던 實로 몹서리치는 저-日章旗抹殺事件… 孫基禎君이 世界마라손에서 一位의 榮冠을 獲得하였을때의그의 報道寫眞에 日章旗를 抹殺하였다는罪(?)로 當時 東亞日報幹部들과함께 拘禁되었을때의 酷毒한拷問取調야말로生覺하면 지금도 몸이떨리는 恐怖感을 抑制할수가없다. 내나라 내民族이 世界制覇를하였다는 歷史的報道를 擔當한 나의義務가 어찌크지않았으랴 내 「카메라」 生活二十年가운데 이러한 惡虐한쓰라린 經驗은 아마처음이였을것이다(白雲善, 1948: 梅19).

경기도 경찰부의 조사결과 당시 일본의 형법에는 외국의 국기와 국장을 파괴, 제거, 또는 오손한 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데 일본 국장 모욕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사건자체는 처벌대상이 못 된다고 하여 행정처분으로 27일 동아일보를 무기 정간시키고 말았다. 이리하여 검거된 지 33일만인 9월 26일 모두 석방되었다(동아일보. 1956. 8. 21). 이들 중 이길용, 현진건, 최승만, 신낙균, 서영호의 5명은 앞으로 언론기관에 참여하지 않는다, 시말서를 쓴다, 만일 또 다른 운동에 참여하면 가중 처벌할 것을 각오한다는 서약을 하고 풀려났다(仁村紀念會, 1976: 391-392). 여기서 당시 경기도 경찰부의 동아일보 기자 취조보고서를 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를 보면 '동아일보 손기정 사진 게출 경위 일람표'라는 제목 하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 운동부기자(주임) 이길용 37세: 23일 오사카 아사히신문 사진후대 손의 사진 흉부의 일장기를 흐리게 하라고 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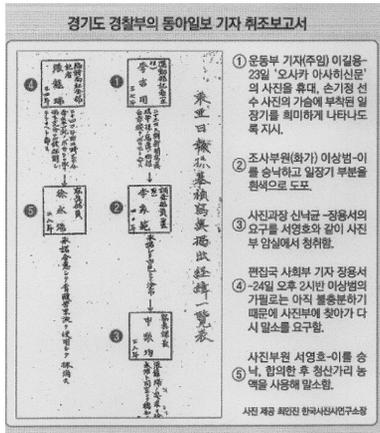


그림 5. 경기도 경찰부의 동아일보 기자 취조보고서
출처: 동아일보, 2006. 8. 25.
“일장기말소는 편집국의 집단거사” 의거 70주년.

- 조사부원(화가) 이상범 40세: 승낙해 백색으로 도포
- 사진과장 신낙균 38세: 장용서의 요구를 서영호와 같은 방에서 듣고 압
- 편집국 사회부 기자 장용서 34세: 24일 오후 2시 30분 이상범이 흐리게 한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말소해버리라고 명함
- 사진부원 서영호 28세: 승낙해 합의하고 청산가리액을 사용해 말소함

참고

- 편집부원 임병철 31세: 자기는 사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백과과실로 약품을 가지고 불선명하도록 하는 뜻을 서의 대신으로 진술하게 교사
- 사진부원 백운선 26세: 경찰부원에게 그대로 허위진술을 함(최인진, 2006: 121).

이처럼 일장기말소사건은 이길용이 이상범에게 제의했으며 그는 이를 승낙하고 장용서는 서영호에게 깨끗하게 말소해버리라고 요구해 그는 청산가리로 말소했다. 그리고 임병철과 백운선은 과실로 일장기가 흐리게 되었다고 하며 경찰에 허위진술을 했다.

이로 인해 동아일보 기자와 편집자들은 석방되었으나 동아일보는 1936년 8월 27일부터 무기정간에 들어갔는데 그 해제는 9개월 6일만인 1937년 6월 2일에 풀려 6월 3일 석간부터 발행이 재개되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1937년 6월 3일 신문지상에 「社告」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曩者 本報에서 日章旗마크抹消事件을 惹起하여 當局의 忌諱에 觸하게된것은 實로 恐縮不堪하는 바이다. 이제 當局으로부터 發行停止解除의 寬大한 處分을 받아 今後부터 一層勤慎하여 更히 如斯한 不祥事를 惹起치 안토록 注意할것은 勿論이어나와 紙面을 刷新하고 大日本帝國의 言論機關으로서 公正한 使命을 다하여써 朝鮮統治의 贊賞을 期하러하오니 讀者諸位께서는 特히 照亮하시와 倍前 愛護하여주시기를 바라나이다. 東亞日報社(동아일보. 1937. 6. 3).

이와 같이 동아일보는 일장기말소사건을 일으킨 점에 사과하고 앞으로 어떤 불상사도 일으키지 않고 대일 본제국의 언론기관으로서 그 사명을 다해 조선통치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은 동아일보가 다시 속간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 결국 동아일보는 3년 2개월 후인 1940년 8월 10일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간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동아일보의 일장기말소사건은 동사 발행의 일간잡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대해 이상범의 회고에 따르면 먼저 신동아는 손 선수의 사진에 일장기 마크가 좀 선명하지 않다고 했으며, 다음으로 신가정에 대해서는

卞氏は「新家庭」에 孫·南(昇龍) 두選手의 脚部寫眞을 뚜렷하게 露出示켰다는 것이라한다. 놈들이 卞氏에게 트집을 하기를 「孫南의 寫眞中에서 全身型을 내지않고何 必脚部만냈느냐?」 하기에 例의 「유모로쓰」한 卞氏는 「아니여보시오, 「마라톤」 競技에 「다리」가 第一이지 얼굴이나 全身이 무슨 關係가 있소, 그래서 그 健壯한 다리를 일부러 讀者들에게 보이기를 爲하여 擴大 掲載하였소」 對答하였더니 놈들도 어이가 없는지 웃으면서 「그러나 그것은 風俗 騷亂 罪에 該當하오」 하며 얼음얼음 하더라는 것이었다. 多幸이 도이 程度의 問答 끝에 卞氏는 며칠 밤 苦生하다가 무사히 釋放되었다(동아일보. 1956. 8. 19).

라고 했다. 이와 같이 신동아에는 손기정 가슴의 일장기를 흐리게, 신가정에는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처럼 손기정 가슴의 일장기를 지운 것이 아니라 손기정의 다리를 부각시키기 위해 확대한 사진을 게재했기 때문

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신동아와 신가정도 동아일보처럼 정간처분을 받았으며 그 후 속간되지 못하고 광복이후에 복간되었다. 이처럼 일장기말소사건은 각 언론매체에서 기사로 다루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의 언론계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일장기말소사건의 당사자인 손기정은 정란이 사건에 대해 동아일보에 “나의 세계 제패가 「일장기말소사건」을 계기로 「찬란한 슬픔」을 삼천리반도에 넘쳐흐르게 했지만 그것은 「한민족(韓民族)은 살아있다」는 구국선언을 천명한 거사였다”(동아일보, 1976. 1. 26)라고 회고한 것 이외에 직접 언급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서술되어 있는 자료는 현재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손기정은 과연 일장기말소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유족인 이준승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기정 할아버지의 선수생활은 일장기말소사건으로 인해 그만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베를린에서부터 올림픽 시상대에서 우승하고 고개 숙이고 일장기가 올라가고 기미가요가 연주되고 그러면서 올림픽무대를 안겨주... 36년도에 나갔었던 손기정 남승룡 이런 분들이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기미가요가 연주되고 일장기가 올라가는지 모르고 나간거거든요. 본인의 국가 정체성은 분명 알리고 했는데 그런 행동을 다해도 결국은 시상대에 서는 본인으로 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때 베를린올림픽 시상대에서 이제 더 이상 일장기를 달고 뛰지 않겠다고 본인 스스로가 국가대표 은퇴선언을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한 거구요. 일장기말소사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장기말소사건은 우리나라 민족정서 인거거든요. 일본사람들하고 손기정의 우승을 나누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본은 손기정 우승을 같이 나누고 싶었구요.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올림픽을 나가긴 했지만 일본도 넘지 못한 올림픽의 벽을 우리가 해냈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못 나누겠다는 거죠. 동아일보가 일장기말소사건 하기 전에 조선중앙일보에서 먼저 지웠고 조선중앙일보는 워낙 신문이 컸던 데가 아니다보니 그냥 넘어갔고 이길용 선생님 같은 경우 이견 지워야겠다. 지워야겠다는 것은 이견 공유하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고 사실 일장기말소사건은 그것 때문에 손기정선수가 마라톤을 안 하게 된 건 아니

예요. 그러나 일장기말소사건을 손기정 할아버지는 정확하게 아시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부터 일어구요. 그때부터 다 정리를 하고 10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으니깐 이미 일장기말소사건은 동아일보는 정간되고 조선중앙일보는 폐간하고 기자들 같은 경우 형무소에 가 있는 상황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일장기말소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누구랑 얘기할 상황이 안 된 거죠. 본인이 싱가포르에서 처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조심하라는 얘기와 함께요.(이준승 면담, 2012. 4. 19).

이처럼 손기정과 일장기말소사건의 관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손기정은 일장기말소사건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한 적은 전혀 없었으며 제3자 입장에서는 손기정의 베를린 행적이 묻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손기정이 마라톤을 그만 둔 계기는 일장기말소사건 때문이 아니라 우승 후 일본인으로 비취지는 모습이 싫어 본인 스스로가 은퇴를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일장기말소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일어나고 2달 후 한국에 돌아왔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결론

본 연구는 손기정의 일장기말소사건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조선중앙일보의 일장기말소사건, 동아일보의 일장기말소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손기정의 일장기말소사건은 일본을 이기고 나아가 세계를 제패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기 위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이 사건의 장본인인 이길용은 손기정의 우승으로 그 감격과 환희가 조신민족의 혼을 되살렸고 조선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민족적 감격에서 비롯된 일장기말소사건은 죽어서도 잊지 못할 중대한 일이었다고 했다.

이처럼 일장기말소사건의 장본인인 이길용이 직접 사술한 회고록을 통해 지금까지 한국근대체육사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그 가치 또한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조선중앙일보의 일장기말소사건은 사장인 여운형이 민족의식을 주입하라고 격려해서 유해봉이 손기정의 민족적인 승리를 통해 전 국민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일어난 것과는 달리 동아일보는 회사의 전통과 방침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주인 김성수와 사장인 송진우가 일장기말소 사건에 대해 매우 노여워했다는 사실에서 기자와 편집자들에 의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김성수는 일장기말소사건이 당시 시대적으로 조선총독부의 문화통치 정책으로 인해 민족지도자들과 사회저명인사들이 친일파로 변절되어가는 상황에서 민족의식을 일깨워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생각하며 동아일보가 민족지로서 깊어지고 가야할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일장기말소사건은 일제의 식민지배하 실의에 빠져있던 우리국민들에게 손기정을 통한 대리만족을 통해 용기와 희망, 그리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며 당시 조선사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 역할을 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80년사 편찬위원회(2000). 민족과 더불어 80년. 동아일보사. 258.
- 白雲善(1948). 寫眞班記者 눈물의 記錄. 新聞記者手帖. 모던出版社. 梅19.
- 孫基禎(1946, 1월 26일). 그때 그일들 <20>. 日章旗抹消事件. 동아일보.
- 손 환(2006). 과학 이길용의 생애와 체육사상. 한국체육사학회지 17.
- 李吉用(1948). 所謂『日章旗抹殺』事件. 新聞記者手帖. 모던出版社. 梅3. 梅6. 梅7-8.
- 李吉用(1950, 4월 1일). 일장기말살 정신 동아일보의 빛나는 전통. 동아일보.
- 李丙權(1983). 養正體育史. 養友體育會. 206.
- 李象範(1956, 8월 17일). 日章旗抹消事件 二十年前的回顧記①. 동아일보.
- 李象範(1956, 8월 18일). 日章旗抹消事件 二十年前的回顧記②. 동아일보.
- 李象範(1956, 8월 19일). 日章旗抹消事件 二十年前的回顧記③. 동아일보.
- 李象範(1956, 8월 19일). 日章旗抹消事件 二十年前的回顧記④. 동아일보.
- 이준승 면담. 2012년 4월 19일.
- 이인숙(1996). 東亞日報 日章旗抹消事件에 관한 小考. 올림픽성화회.
- 仁村紀念會(1976). 仁村 金性洙傳. 391-392.
- 채백(2008). 사라진 일장기의 진실. 커뮤니케이션북스. 103.
- 최인진(2006). 일장기를 지우다. 신구문화사. 122.
- 편집부(1936). 重疊한 半島言論界의 不祥事, 東亞日報 停刊 中央日報休刊. 三千里 8(11). 32.
- 편집부(1936, 8월 13일). 머리에빛나는 月桂冠, 손에 굳게 잡힌 檜苗木. 조선중앙일보.
- 편집부(1936, 8월 13일). 月桂冠손孫基禎. 동아일보.
- 편집부(1936, 8월 25일). 榮譽의 우리孫君. 동아일보.
- 편집부(1936, 9월 4일). 社告. 조선중앙일보.
- 편집부(1937, 6월 3일). 社告. 동아일보.
- 편집부(1947, 7월 1일). 일장기 말소하기까지. 조선중앙일보.
- 편집부(2006, 8월 25일). 일장기말소는 편집국의 집단거사 의거 70주년. 동아일보.